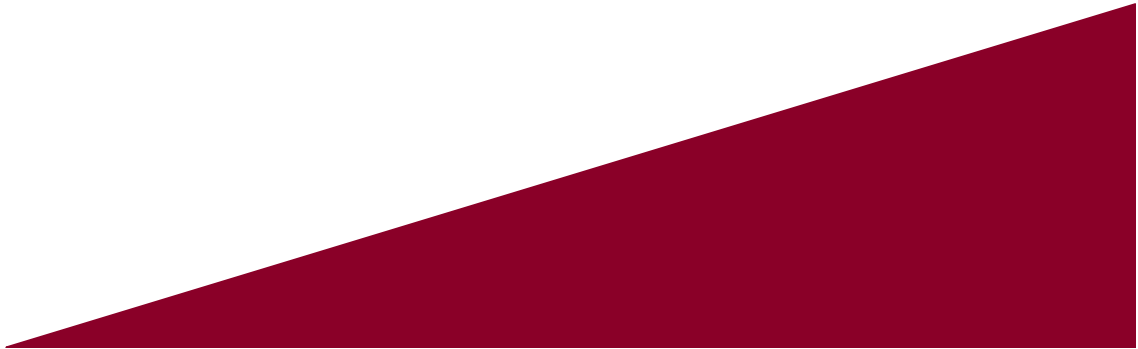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볼
과거의 유경이 이야기



나도 대학생이 처음이었다

- 시골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상경했다.
-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했던가 그래서 서울로 왔다.
- 서울오면 각종 인프라를 누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던데?
- 그래서 대학에 입학했던 3월. 나는 그 모든 장점을 찾아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대학생이 처음이라 쉽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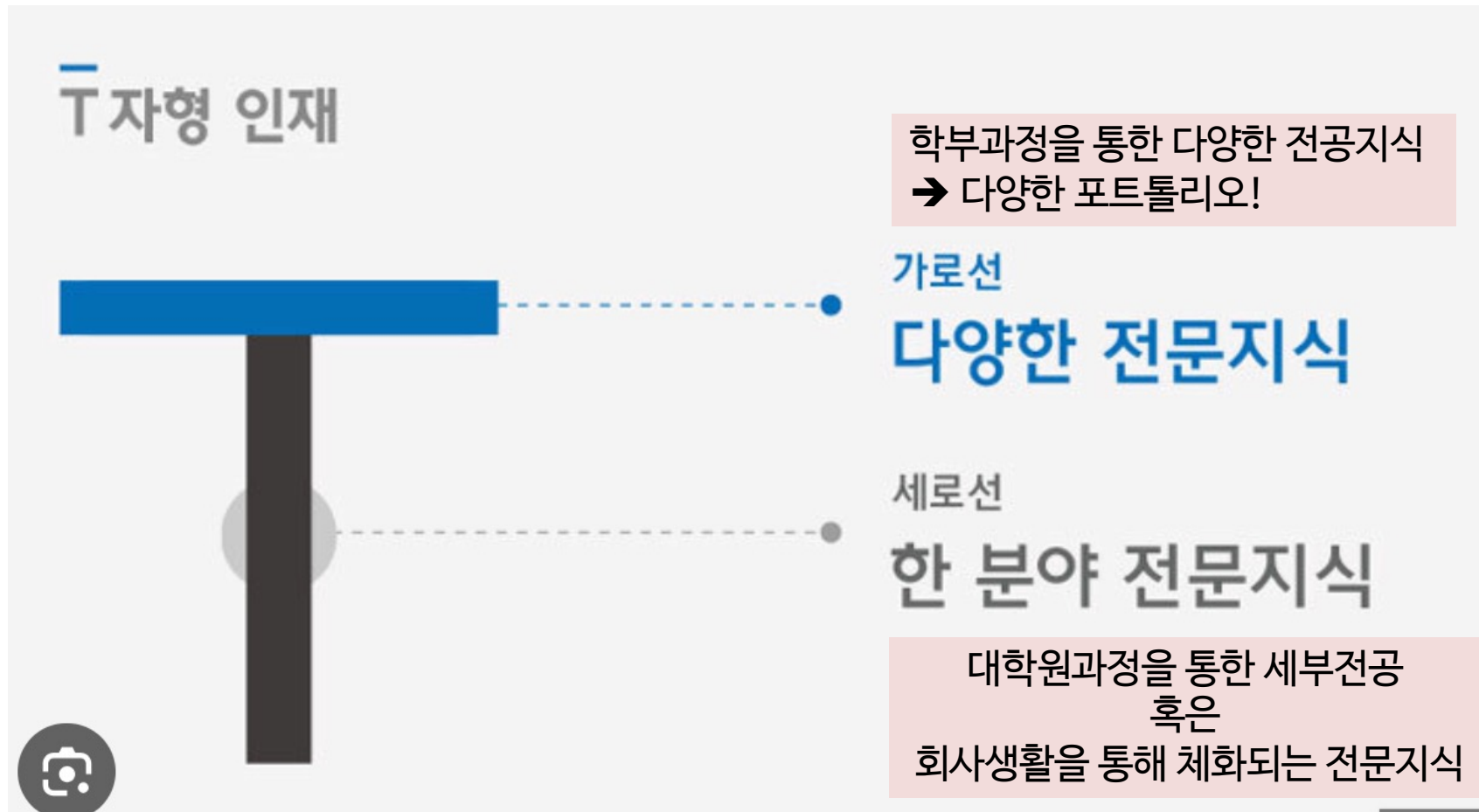
근데 인생 모든 단계가 다 처음이더라!

- **1학년 : 전공에 적응도 안된 고등학교 4학년 꼬맹이 시절**
 - 아무도 나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주어진 자율성을 잘 활용해야 하더라.
- **2학년 : 전공 내 세부 전공은 왜 이렇게 많고, 뭘 공부하라는거야 혼동의 카오스 시절**
 - 왜 이렇게 많이 알려주냐고? 졸업하고 내가 무슨 전공을 선택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싶으면 세부 전공을 찾아서 내가 집중해야 하는 거더라. *일만시간의 법칙
 - 한편으로는 전과목 A+ 받는 사람들은 괴물이 맞고, 대학생활을 그렇게 보내는게 맞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물론 학점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님.
- **3학년 : 나는 졸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과 번뇌의 시절**
 - 매순간 최선을 다하면서도 고민과 번뇌가 따라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
- **4학년 : 졸업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회사를 얼마나 다닐 수 있을까?**
 - 선배들이 이야기 하던 38선 vs 45정.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더라.
 - 중요한 사실은 내가 회사 대표라면 나 뽑음? 나는 어딜가도 내 몫을 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었음?

*인생목표! 어디서든 1인분하기

T자형 인재가 되라던데

- T자형 인재가 되거라?



졸업 이후 꿈꾸었던 모습

- 공학(engineering)이란?

- (위키피디아)

- 공업 분야의 응용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학분 또는 과학적, 경제학적, 사회적 원리와 실용적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 도구, 건축물/조형물, 시설 등을 만드는 것에 관한 학문이다.

- 엔지니어(engineer) 란?

- 공학을 실천하는 것 또는 기술자

졸업 이후 꿈꾸었던 모습

- 어느 교수님의 조언
 - 엔지니어는 항상 제품을 100원에 만들어 110원에 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 졸업 이후 목표
 - 내가 상상한 제품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 비록, 해당 제품을 누군가 돈을 주고 구매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
 - 온전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
 - HW, SW 영역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 경험할 것
 -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분야를 고민할 것
 - 로봇의 브레인 → 지능 → 시각 지능 → 컴퓨터 비전

졸업 이후 꿈꾸었던 모습

- 졸업 이후 목표를 위한 노력

- 내가 상상한 제품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 지문인식 기반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 (2002-2003)
 - 4족 보행 로봇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 (2003-2004)
 - 나만의 32비트 프로세서 & 나만의 OS (2004-2005)

- 온전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

- 내가 만든 로봇, 내가 만든 CPU, 내가 만든 OS, 내가 만든 감시 시스템 등

- 대외활동

- “나를 성장시킨 8할은 비교과 활동이었다. thx

- 교내 학술통아리 : 전자전시회(SEE)
 - 교외 동아리 : 삼성소프트웨어멤버십(SSM)

그대들이 꿈꾸는 졸업 이후 모습은?

- 지나고 보니 과거의 유경이는 기술이 좋아 덕업일치한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
- 모두가 나처럼 기술에 빠져 살아갈 필요는 없다.
- **그런데, 궁금하다. 그대들이 꿈꾸는 졸업 이후 모습은 무엇인가?**
- 모두가 같은 모습을 꿈꾸고, 같은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 그대들이 원하는 모습과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한다. 그걸 찾아야 하는게 대한민국 대학생의 의무가 아닐까 싶다.

대학원 가야하나요

- 교수가 되고 면담을 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

“인공지능 전공은 대학원 가야하나요?”

- 나의 대답은 이렇다.

“아니, 반드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런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일만시간의 법칙! 이라는게 있다.

“그렇다. 집중해서 일만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곳!

같은 목표로 동료들과 함께 일만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대학원이다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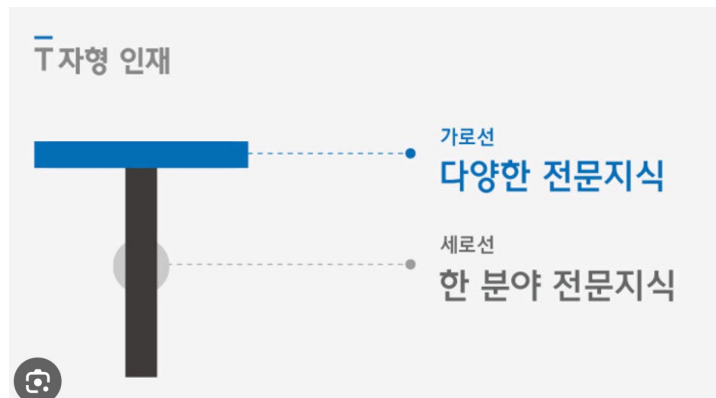
전문가가 되기 위해 대학원을 진학하는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다.”

대학원 가야하나요

- 그러니까, 대학원에 오라는 말이냐고?
- 아니! 학부 4년을 일만시간의 법칙에 맞게 집중해서 사용해 노력한다면 한 분야 전문가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맹목적으로 학점 따는거 말고...)

학부 4년 * 1년 365일 * 하루 8시간 = 11680

-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 거냐고?
 - 모르겠으면, 이미 그대들은 전공을 골랐으니, 뭐라도 해라. 그대들은 다양한 전문지식을 쌓는게 먼저이다. 그리고 하나씩 쌓아가면서 방향 잡아도 된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 주세요~

- (마지막 이야기)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저 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인생 선배이자, 수업으로 만난 교수이자, 지나가는 인연이겠지만
고민하는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 “썰” 풀어보았습니다.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내어 보세요.

그게 인생인 거 같습니다.

여러분은 잘 할 겁니다.